

천태종, 진각종 등 각 종단에서 설립한 종합대학들이 불교학과 종단 교학체계 연구에 기여하는 등 불교학 발전을 주도하고 있다.

천태종 금강대, 진각종 위덕대 등은 불교학 관련 세미나 등을 통해 시대에 맞는 불교적 대안을 제시하고 소속 종단의 교학체계를 세우는 연구도 진행하고 있다. 나아가 한국불교를 세계에 알리고 종단의 위상을 한 단계 끌어 올리는 역할까지 수행하고 있다.

천태종의 교학체계 연구는 그동안 종단 산하의 천태불교문화연구원과 종전연구원 등에서 담당해 왔으나 금강대 부설 천태불교문화연구소와 불교문화학부도 이에 가세했다. 이

개교기념 불교학술대회... 상월조사 업적 등 조명

천태종 금강대

진각종 위덕대

밀교경전 번역·학술 자료집 발행·세미나 개최

종립대학 불교학·교학체계 발전 견인

에 따라 천태종 종립 금강대는 개교를 기념해 11일 대강당에서 첫 불교학술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날 세미나는 이봉준 동국대 불교문화대학장 등 5명의 불교학자들이 발제를 맡아 천태종과 상월 조사, 21세기 불교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모색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첫 발제자로 나선 최기표 동국대 강사는 '상월원각대조사의 생애와

업적'에서 천태종 종장과 총본산 건립, 대승적 수행체계 확립, 현대적 교화제도 확립 등을 상월대조사의 업적으로 평가했다. 또 "상월 조사의 모든 기록을 분석한 결과 저술마다 상치하는 내용이 많아, 이를 바로잡을 필요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봉준 동국대 교수는 '천태종 종장의 역사적 의의' 논문을 통해 "천태종은 총화불교를 실현하고, 생활·대중 불교를 구현하며, 상생과 조화의 가르침을 통해 미래문명을 선도할 과제를 안고 있다"고 주장했다.

불교를 구현하며, 상생과 조화의 가르침을 통해 미래문명을 선도할 과제

를 안고 있다"고 주장했다. 진각종 종립 위덕대의 불교문화학부와 밀교문화연구원도 밀교와 교법·교학체계를 바로 잡고 발전시키는 주제로 떠오르고 있다. 위덕대는 매년 밀교 학술 세미나를 개최하는 한편, 밀교학 연구와 경전번역, 학술지·자료집 발간 등의 활동을 벌

치고 있다.

올해도 위덕대는 진각종의 제56돌 창교절(6월 14일)을 기념해 17일 본관 대회의실에서 밀교 학술세미나를 개최한다. '진각종 창교의 역사적 의의'를 주제로 열리는 이번 세미나는 김경집 진각종 종학연구원장이 '창교의 시대적 배경'에 대해 발표하며, 장익 위덕대 불교문화학부 교수가 '진각종학의 불교학적 기반'에 대한 논문을 발표한다. 위덕대는 이번 세미나를 통해 밀교학 대중에 힘써나갈 계획이다.

진각종 교육원 관계자는 "종립대학에서도 종단의 교법·교학체계에 대한 연구를 동시에 진행하기 때문에 보다 장기적이고 심층 있는 연구가 가능하다"며 "종립대학의 연구활동이 종단의 교법·교학 사상 정립에 큰 도움이 되고 있다"고 말했다.

박봉영 기자 bypark@buddhapia.com



대한법화종 57주년 기념법회

법화종은 9일 서울 총무원 대법사에서 창종 57주년 기념법회를 봉행했다. 종정 해산스님을 비롯해 원로회장 지우스님, 총무원장 직무대행 해륜스님, 중앙총회회장 안운스님 등 1백여명이 참석한 이날 법회에서는 모든 종도들의 원력을 모아 종단 발전과 불교 증흥에 매진하기로 결의했다. 이날 법회는 지난 1월 총무원장 직무대행 집행장지 가져분으로 촉발된 종단내 분규를 일단락하고 열린 첫 종단 행사였다.



분당 대광사 대법당 기공식

천태종 분당 대광사(주지 운덕)는 12일 대법당 기공식을 봉행했다. 주지 운덕스님(천태종 총무원장)은 "부처님의 청정한 법음과 광명을 펴는 수도권의 모범적인 포교도량으로 자리잡아 나갈 수 있도록 사부대중이 원력을 모아나 가지"고 말했다. 성남시 분당구 구미동 무지개마을에 건립되는 대광사 대법당은 전통 목조 다포양식으로 2백여평 3층으로 지어진다. 실내에는 19m 높이의 청동 관음좌상이 봉안될 예정이다.



◇관음종은 7년여의 복원불사 끝에 총본산 묘각사를 낙성하고 종도들의 정신적·신앙적 귀의처로 자리매김해 나가기로 했다.

“전법도량으로 우뚝 서길”

관음종 총본산 묘각사 낙성대법회 봉행



관음종 총본산 묘각사가 7일 낙성했다. 지난 97년 2월 화재로 대웅전과 범종각 등이 전소된 이래 관음종 종도와 불자들이 한 마음으로 복원불사를 추진한 지 7년여 만이다.

관음종은 7일 관음종 총무원장 홍파스님을 비롯해 조계종 총무원장 법장스님, 태고종 총무원장 운산스님, 천태종 총무원장 운덕스님, 진각종 효암 통리원장 등 사부대중 3천 5백여명이 동참한 가운데 새로 건립된 대법전에서 집안 및 낙성대법회를 봉행했다.

관음종 총무원장 홍파스님은 “총

본산 묘각사 낙성을 종단발전의 새로운 전기로 삼아 관음종이 불교발전을 이끌어 나가자”고 소회를 밝혔다. 한국불교종단협의회 회장 법장스님(조계종 총무원장)은 “지역주민과 서울시민들에게 부처님의 크신 가르침을 전파하는 전법도량으로 우뚝 서길 기대한다”고 축하했다.

관음종은 530여평의 대지에 연건평 450평 이상 3층 규모의 묘각사 대법전을 낙성함에 따라 종단의 종지 중흥을 선양하는 법화신앙의 중심도량으로서의 면모를 갖추어 나갈 방침이다.

박봉영 기자

일불선교종 7월 추모



일불선교종은 8일 서울 신영동 일불선원에서 일불 대중사 원적 7주기 추모법회를 봉행했다.

일불문도회가 주최하고 일불선교종과 일불 은제사 문도회가 주관한 이날 법회는 발원문 낭독, 행장 소개, 제례사, 추모사 등으로 진행됐다. 한편 재단법인 일불선교종도 9일 경남 의령 일불사에서 '일불선교 원적 7주기 추모제'를 봉행했다.

1914년 제주도 서귀포에서 태어난 일불선교는 32년 제주 삼방골사에서 득도한 이래 훈답스님으로부터 일불이라는 법호와 한영스님으로부터 전강을 받았다. 이후 해인대학 교수, 동아대 주임교수, 불국사 주지, 동국대 교수 등을 역임했으며, 88년에 일불선교종을 창종했다.

모집

▲참여불교재가연대 산하 불교아카데미(이사장 윤천수)는 스님, 사찰·불교단체 실무자를 대상으로 제2기 프리젠테이션 전문가 과정을 개설한다. 7월 8~9일, 18일 3일간 총 24시간 열리는 과정에서는 기획, 파워포인트, 포토샵, 프리젠테이션 일반에 대해 교육한다. 참가비 25만 원. 한편 재가연대는 7월 20일부터 25일까지 한국에서 열리는 참여불교세계대회에서 일할 자원봉사자를 찾는다. (02)745-7799 ▲서울시립은평노인종합복지관

은 중학교 과정 무료 검정고시반 수강생을 모집한다. 대상은 은평구 40세 이상 지역주민으로 초등학교 졸업자 및 중입검정고시합격자. 교육내용은 중학교과정 도덕, 국어, 수학, 영어, 사회(국사), 과학, 미술, 가정 등 8과목. 기간은 8월~2004년 7월. (02)385-1351 ▲서울시립 금천노인종합복지관은 영어문화, 일어문화반을 지도할 자원봉사자를 모집한다. 일시는 매주 1회 1시간. 영어 및 일어 특혜와 강의가 가능한 사람이면 누구나 지원 가능. (02)804-4058

게시판

▲안양시노인복지센터는 지역 내 어르신들을 위한 무료 종합리플을 실시한다. 진료과목은 내과, 피부과, 안과, 치과, 한방과, 정형외과. 진료는 28일 오후 4시 센터 내 강당. 진료상태에 따라 내복약과 안경 등을 지급한다. (031)455-0551 ▲불교여성개발원은 '준비하는 결혼, 행복한 가정'이란 주제로 미혼남녀를 위한 무료 혼인준비 강화를 총 6회에 걸쳐 진행한다. 첫 강좌는 26일 서울 조계사 불교대학 2

층 강당실에서 백경민 동국대 경주캠퍼스 가정교육학과 교수의 '불교와 결혼생활'. (02)722-2101 ▲강릉시장애인종합복지관은 사회복지사, 물리치료사(경력자), 심리치료사, 작업치료사 등을 모집한다. 지원자격은 해당 자격증 소지자로, 준비서류는 이력서, 자기소개서, 최종 학력증명서, 성적증명서, 주민등록 등본, 마감은 20일까지. (033)643-1801-4 ▲서울 구로종합사회복지관은

이동목욕 담당 사회복지사, 방과 후보육교사 등을 모집한다. 지원자격은 해당 자격증 소지자로, 준비서류는 이력서, 자기소개서, 주민등록등본, 해당 자격증사본 각 1부, 마감은 18일까지. (02) 852-0525 전화 한 통화로 편리하게 구독료 저렴한이씨하세요! *계좌번호 변경이나 해지를 원하실 때도 전화로 알려 주시면 됩니다 신청 및 문의 02)737-0090

종단소식

학인대상 설법문안 공모

조계종 포교원은 기본교육기관에 재학 중인 학인들을 대상으로 <법회와 설법> 9월 발간 100호 특집에 게재할 설법문안을 공모한다. 어린이, 청소년, 청년, 일반, 군 등에서 주제를 선택해 200자 원고지 35장 내외로 작성하면 된다. 원고 형식은 설법문표를 명확히 제시하고 구어체, 존칭어로 작성해 7월 31일 까지 포교연구실(kampd@buddhism.or.kr)로 접수하면 된다. 당선자에게는 총 350여만원의 상금이 수여된다. (02)720-7064

구인사 개산 58주년 법회

천태종 총본산 구인사는 4일 대법당에서 개산 58주년 기념법

회를 봉행했다. 천태종 총무원장 운덕스님은 기념사를 통해 “천태종 중창 이념인 불교를 통한 말법증생 구제와 세계인류평화를 염원한 유지를 받들어 오늘에 만족하지 말고 명실상부한 세계 불교화에 노력 정진할 것”을 당부했다.

승정원 원로원으로 개칭

조동종 중앙총회(의장 진입)는 10일 총무원 보리원에서 제29차 임시총회를 개최했다. 승정원을 원로원으로 개칭하는 등 종헌 중법의 일부 조항을 개정하고 10월 14~16일 강원도 심신수련원에서 승려 연수교육을 실시하기로 확정했다. 또 법계위원장 범해스님과 고시위원장 제공스님 등에게 대덕 법계를 폄수했다.

의견광고

이천만 불자의 가슴에 또다시 못 박지 마십시오!

- 종권전환 종권탈취 행위로 멀빈을 받은 자들에 대한 사면복권을 반대합니다 -

삼보님전과 중정예하, 원로의원스님들, 그리고 총무원원장스님, 종회의원스님들과 이 땅의 사부대중에게 엎드려 뵙습니다.

최근 과거 종권전환과 종권침탈 행위로 인해 멀빈의 징계를 받은 자들을 사면 복권해야 한다는 주장이 공공연히 나오고 있습니다. 이를 주도하는 일부의 권위와 권력과 언론의 행동과 논리를 저희 젊은 수행자들은 냉정하게 주시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왜 滅擻의 징계를 받았습니까? 1994년과 1998년의 종단 사태는 폭력으로 종권을 사수하고 폭력으로 종권을 탈취하고자 한 용서받기 힘든 사건이었습니다. 가장 비폭력적이어야 할 교단에 조직폭력배의 동풍이와 칼로 수행자를 유린하고 잘못 내린 교시를 빌미로 조계종 종단의 규범과 체제를 부정하고 전체 불교를 유린하였습니다. 종단은 마비되었고, 스님들은 승복이 부끄러웠고 불자들은 불자됨이 부끄러워 개종까지 하기에 이르렀던 것입니다. 우리는 그때를 기억하는 것조차 진저리쳐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때 우리 젊은 수행자들은 항거했습니다. 우리는 종권전환을 반대하고 항거하는 것이 정당하고 부처님 가르침에 합당하다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교단을 혼란스럽게 하고 한국불교를 수치스럽게 만들었기에 그들은 律敎과 宗憲·宗法에 근거해 滅擻이란 징계를 받은 것입니다. 교단의 사부 대중은 거기서 그 결정을 수용했습니다. 그 결과 오늘의 종단은 평온을 가져올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律敎과 宗憲·宗法을 고치면서까지 滅擻者들을 사면 복권해야 할 절실한 당위성과 정당성은 무엇입니까? 현 집행부의 傳統性과 正體性은 무엇입니까?

멀빈 복권의 당위성과 정당성에 앞서, 지난 종단사태 때 멀빈자들이 자행했던 무도한 폭력으로 가슴에 피멍이 들었던 사부대중과 이천만 불자들의 아픔과 울음을 한번이라도 생각해보셨습니까? 뜻을 물어보셨습니까? 살펴보셨습니까? 소수의 주동자들과 힘의 논리에 의한 사부대중의 뜻이 왜곡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종단이 정상화된 후 극소수 주동자만 滅擻의 징계에 처했을 뿐, 대다수에게는 제적 이하의 징계를 내렸고, 꾸준한 종단 회합 조치로 현재 사면 복권을 할 만한 대상이 없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미 滅擻된 사람들까지 되살려 종단의 정통성과 화합을 해쳐 가면서까지 복권을 시도한다면 저희 젊은 수행자들은 그 의도의 불순함을 의심하며 이를 묵과할 수 없습니다.

멀빈자들을 복권시키는 것은 종단의 혼란과 분열을 초래할 뿐입니다. 고질적인 폭력과 종권 다툼을 예고할 뿐이며 역사를 되돌리는 용서받기 힘든 조치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사태에 대하여 엄중히 경고하고자 합니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피나는 정진뿐입니다. 이제 저희들이 열심히 수행정진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십시오. 우리 젊은 수행자들은 법에 근거하여 그릇됨을 그릇되었다고 할 수 있는 살아있는 정신과 실천만이 삼보의 慧命을 이룰 수 있음을 믿습니다.

전국 젊은 수행자들 모임 靑思靑行會 회원 합장